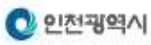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 매개체감염병과 장진섭 ☎440-5441 • 담당자 고연자 ☎440-544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기밀도조사사업 실시
- 말라리아원충 및 일본뇌염 바이러스 집중 확인검사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모기밀도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매년 모기밀도 조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운영지점은 도심¹ 4개소, 도서² 8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주 1회 모기를 채집하고 종 분류 및 동정, 개체수밀도조사를 실시한다.

도심¹ : 부평구 부평동, 서구 연희동·백석동, 계양구 선주지동

도서² : 강화군 대산리·월곶리, 송해면 송뢰리·솔정리, 삼산면 석모리, 교동면 대룡리, 선원면 금월리, 중구 운남동

아울러,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

날개모기류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원충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작은빨간집 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 확인검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 결과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 19년에 비해 31.9%가 감소한 25,180마리의 모기가 채집되었다. 그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6,503마리가 채집되었으나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19마리로 ' 19년 13마리보다 106마리가 증가하였다.

또한 ' 19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 389명 중 인천시는 51명이었으나, ▲일본뇌염 환자 7명 중 인천시 발생환자는 없었다. 올해는(3월 25일 기준) 전국 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축적된 모기 감시 사업 경험을 토대로 모기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1>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환자 국내발생현황

<붙임 2> 유문등 설치 사진

<붙임 1>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환자 국내발생현황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021. 3. 25.)

구 분	말라리아			일본뇌염		
	2021년	2020년	2019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국	7	389	559	0	7	34
경기	3	227	294	-	6	8
서울	1	57	100	-	-	7
인천	-	51	87	-	-	1
강원	1	12	15	-	1	2
부산	1	2	14	-	-	-
대구	-	3	2	-	-	3
광주	-	5	4	-	-	2
대전	-	4	5	-	-	1
울산	-	3	2	-	-	-
충북	-	5	7	-	-	1
충남	1	7	9	-	-	4
전북	-	4	3	-	-	-
전남	-	1	-	-	-	2
경북	-	3	5	-	-	1
경남	-	4	8	-	-	2
제주	-	-	3	-	-	-
세종	-	1	1	-	-	-

- (국내 말라리아 발생현황)

- '80년대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 하였으나, 1993년 재출현함
- 2000년(4,183명) 정점이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 ~ 600명 수준 유지

- (국내 일본뇌염 발생현황)

- 서울, 경기 지역 발생건이 전체 48%를 차지함
- 최근 10년간 신고 된 환자의 38%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이 전체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함

<붙임 2> 유문등 설치 사진

